



농림축산식품부

보도자료

힘내라
대한민국

2020년 8월 10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과 장 이기중(044-201-2551), 서기관 황성철(2555) / 제공일: 8월 7일(총 5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

- 겨울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엄중한 상황, 선제적 방역관리 추진 -

《 주 요 내 용 》

□ 농식품부는 국내외 방역상황을 고려할 때 올겨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선제적 방역관리 추진

○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급증¹⁾, 국내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²⁾, 방역시설 등이 미흡한 가금농가 다수 확인³⁾ 등 엄중한 방역상황으로 올 겨울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

1) 2019년 동기(~7월) 대비 전 세계 2.9배 발생 증가(최근 호주·러시아 내 발생 확인)

2) 상시 예찰결과, 전통시장 등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H9N2형) 23건 검출

3) 가금농가 일제점검 결과(~8.5, 현재 진행 중) 방역 미흡농가 277호 확인

○ 지난 7.31일 개최된 「2020년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 대비 심포지엄」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도 올겨울이 위험시기로 차량 통제와 축사시설 정비 등 농가 단위 차단방역의 중요성 강조

○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5월부터 가금농가 시설 점검과 교육·홍보 등 겨울철 대비 방역대책 추진과 더불어 전통시장 관련 시설에 대한 검사와 점검, 소독 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 중

□ 농식품부는 올겨울 철새 등을 통한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큰 만큼, 전국 가금농가는 방역시설 점검, 차량 출입통제,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

□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)는 국내외 방역상황을 고려할 때
올겨울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
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선제적 방역관리를 추진한다.

○ 해외 상황을 살펴보면, 올해(8.6.까지) 전 세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
엔자 발생건수가 전년 대비 2.9배 증가하였으며 유럽은 33배,
중국·대만·베트남 등 주변국은 2배 증가하였다.

- 특히, 최근에는 2014년 이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한 번도
발생하지 않았던 호주 내 가금농가(산란계)에서 발생(7.31.)
하였고, 러시아 내 소규모 농가에서도 발생(8.4.)하는 등
세계적으로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이다.

* 2020.8.6일까지 전 세계 489건 발생(전년 동기 170건), 유럽 331건
(전년 동기 10건), 중국·대만·베트남 등 주변국 132건(전년 동기 65건)

○ 또한, 최근 검출이 감소했던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*(H9N2형)가
상시 예찰·검사 과정 중 올 6월부터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와
이곳에 가금을 공급한 농가 등을 중심으로 지속 검출되고 있다.

*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에 따른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 가금에서 임상증상이 거의
없으나 일부 산란율 저하 등 피해(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제1종 가축전염병)

*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H9N2형) 발생현황 : (2016) 204건 →
(2017) 5건 → (2018) 1건 → (2019) 0건 → (2020.8.5.일까지) 23건

○ 아울러, 지난 4월부터 실시 중인 전국 가금농가 일제 방역
점검 결과(~8.5, 추진 중), 전실·울타리·그물망 등 방역시설이나
소독시설에 문제가 있거나 출입통제 등 방역 미흡 가금농가가
277호 확인되었고, 이중 28호는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등
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다.

○ 이와 같은 국내외 상황을 고려할 때, 올겨울 철새 등을 통해
국내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유입된다면 가금농가에서의
발생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다.

□ 농식품부는 올겨울 조류인플루엔자 국내 유입 가능성을 진단하고 대비책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7.31일 「2020년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 대비 심포지엄」을 개최하였다.

○ 심포지엄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올겨울이 위험시기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,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차량 통제와 방역시설 정비 등 농가 단위 차단방역 수칙을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이행해야한다고 설명하였다.

○ 특히, 농가 내로 조류인플루엔자가 유입되지 않도록 사람과 축산차량의 출입을 최소화하고 이를 위한 농가 구조 등 시설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.

□ 농식품부는 위험시기인 겨울철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《2020년 겨울 대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》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.

○ 전국 가금농가 일제점검*을 통해 겨울 전 농가별 방역시설 등 취약요소를 발굴·보완, 유튜브(YouTube) 등을 활용한 온라인 방역 교육·홍보**를 추진 중이며,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구간을 지난 겨울철보다 확대 설정하고 9월부터 조기 운영할 계획이다.

* 그간(4.27~8.4) 3,865호 점검, 과태료 대상 28호(전실·그물망 등 방역시설 또는 소독시설 미설치 등), 현지도 249호(기록, 소독제 관리, 농가 안내판 미흡 등)

** 농식품부 유튜브 채널(농러와tv)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수칙 영상(5개) 게재, 2020년 겨울철 대비 심포지엄 생중계, 축산단체 SNS, 영상회의 활용 교육 등

○ 또한, 최근 검출되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H9N2형) 전파 차단을 위해 검출시설 통제와 소독, 가축거래상인 계류장에 대한 검사와 점검 등 방역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,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을 계기로 현 방역체계에 미흡한 점은 없는 지 조사하고 드러난 미비점은 신속히 보완할 계획이다.

- 농식품부는 올겨울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큰 만큼, 전국 가금농가와 축산시설에서는 비상한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- 특히 가금농가는 농가 내로 조류인플루엔자가 유입되지 않도록 전실·그물망·울타리 등 방역시설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 점검하고 출입통제와 소독 등 방역수칙을 빠짐없이 이행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.
- 또한,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지자체,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사전 대비태세를 구축하고, 효율적 방역을 위한 제도 개선과 현장 방역지원 등 방역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.

참고

2020년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 대비 심포지엄 개최 사진

□ 2020년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 대비 심포지엄 개최

○ 일시/장소 : '20.7.31.(금), 정부세종컨벤션센터(4층 국제회의실)

○ 방식 : 현장 개최사항을 유튜브*(Youtube) 생중계로 진행

* 농식품부 유튜브 채널, 농러와TV

○ 관련 사진

